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제2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비 전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23. 만입이 내게 있으면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때때로 혼자인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질 때에도,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에 눈물지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확신할 때마다 힘겹던 삶은 돌연 축제로 변합니다. 홀로인 것 같아 울던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형제 자매를 부둥켜안을 수 있음이, 답답할 때마다 하늘을 우러를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요?

주님, 피어나는 장미꽃과 함께 무덤 위의 시든 풀들도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슬픔과 탄식을 거두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겠습니다. 주님께 바친 것만이 영원한 빛을 받아 환하게 빛날 것을 믿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오니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사54:7-8 …… 인도자

♠ 교 독 문 …… 41. 이사야 65장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임보람 선생 Ⅱ.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 다함께

응 답 송 …… 성가대

찬 송 …… 1. 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마 2:1-12 …… 다함께
Ⅱ. 빌1:3-11 안경숙 집사

찬 양 …… 성가대

말 씀 …… **Ⅰ. 무얼 기다리나요** …… 김재흥 목사
Ⅱ. 낙관주의의 뿌리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83. 환난과 핍박 중에도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어렵고 고단한 삶이라 해도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을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에 평화를 가져가는 이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참 좋으신 하나님, 세속의 물결을 따라 표류하느라 지친 우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닻을 내린 사람답게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고통과 시련이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배로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가대 주최예배	로마서 강해(62)
설교 : 김기석 목사	기도 : 조항범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박정숙 선생 박옥식 전도사	다함께 김희진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정덕	박창운	박규석	조병주	백혜숙	이증자
	헌금위원	윤석철	김중수	한상익	구성실	김필순	이순정

▣ /믿/음/으/로/읽/는/글/

작지만 아름다운 한결교회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가을 단풍을 즐기기 위해 빠져나가 도시는 한산하다. 그러나 행락객들로 인해 모든 고속도로는 혼잡했다고 한다. 주 5일 근무가 점점 정착되면서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은 동호회나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바쁜 일들로 인해 자신과 가족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회 변화와 함께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늘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은 그 가족의 따뜻함과 함께 함을 마냥 부러워해야만 한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 고통스런 날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이 꺼질 듯 한숨을 쉬며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고 생활할 때가 많다. 그런 이웃들은 우리 주변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이런 이웃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송파구 문정동의 '한결교회'(송재천 목사)는 교인 수가 2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다. 주택가의 건물 지하에 자리한 허름하고 작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교회이지만, 창립 초기부터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다니며 그들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일, 한결교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창립기념과 추수감사예배를 드렸다. 생일을 맞은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교인들과의 친교가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초청해서 정성을 표하고 함께 따뜻한 식사를 나눴다.

한결교회는 뜻깊은 날을 맞아, 어렵게 생활하는 두 가정과 경제적 사정으로 점심을 걸러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작은 정성을 표했다. 지역 주민인 72세 채순분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딸 둘을 어렵게 키웠으나, 둘째 딸은 고3 때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 사위는 정신지체인 아들을 두고 행방불명이 되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큰딸과 정신지체 손자를 돌보며 지하셋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지역 주민인 57세 신월순 씨는 젊어서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서 온갖 궂은 일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정신질환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현재 정

신지체3급 장애를 갖고 혼자서 지하셋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몇 년 전 유방암 수술 후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11월중 다시 입원을 해야 할 형편이다.

송 목사는 "교회가 지역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2천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작고 약한 교회이지만 처음부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일들을 지속해 왔고 교회의 생일을 맞아 우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작은 웃음을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 부끄러운 사랑을 나눴다"고 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에 모든 교인들이 기뻐하며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에도 채순분 할머니에게 작은 정성을 나눴는데 할머니는 그것이 고마워 동사무소에서 나눠준 쌀을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작은 사랑의 나눔은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이 시대에 사랑의 실천은 결코 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적은 관심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송재천 목사는 홀트아동복지회 회장을 지냈고, 미담신문 <땡스투올>을 발행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기

제아무리 고상하고 지적인 사상이라도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병 속에 갇힌 꿀벌과 같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돈이나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하고 몸소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면 먼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로 만나면 자기가 헌신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만남이 몇 번 더 이루어지면, 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이며,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 『즐거운 마음』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때와 반복의 거창한 그림자들

가령
저녁을 먹는 일은
(매일 먹어야 한다면)
중요하다.
그러므로
거기 딸린 모든 게 중요하다.
배고픔과 배부름,
나눔과 노동,
잡담,
친밀과 냉담,
기쁨과 슬픔,
느낌의 베일에 비취는 그
그림자들은
더없이 소중하다.
저녁을 먹는 일은
어떤 거창한 일의 일부가 아니다.
그건 그 자체로서 거창하다.

(정현종)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종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혜숙 이용한 오성희 강인식 김종훈 안경숙 김훈동 유경순 안종일 정현주 이광용 형인순 김근종 정옥영 박애순 박영숙 김용길 최영혜 김시영 노용래 이은옥 김지윤 김인걸 문영혜 안정숙 박영희 오진훈 노순옥 박재실 김재흥 최희영 박홍엽 염혜영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유증희 이재문 윤성종 김윤정 이지훈 황경순 박석희 조항미 정두리 왕수명 권미정 김성한 조영순 조병주 이정은 김정섭 김영한 김성자 김창원 정지은 김수진 김승현 노미향 박범희

감사헌금:

배삼순 최종원 강인식 전나래 안길상 이형숙 김홍기 무명2

생일감사헌금: 김중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차 혜 심	정 두 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노 순 옥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김 필 순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장 혜 숙	이 봉 배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안 정 숙	조 병 주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춘 려	김 순 복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오 성 희	김 명 순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이 순 정	오 복 순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이 명 희	이 형 숙
가버나움	구 성 실	안 홍 숙	오 현 정	이 봉 옥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옥 영	정 영 선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영	이 영 란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최 영 혜	조 항 미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금년에 속회 개근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출해주십시오.
2. **오후집회** : 오늘 오후 집회는 성가대 주최예배로 모입니다.
3. **당회** : 2003년도 당회가 12월 14일 오후 2시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4. **공천위원회 :** 오늘 오후 집회 후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5. **기부금 영수증 :**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부에 신청하십시오.
6. **헌화 신청 :** 내년에 강단 헌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주십시오. 해당되는 주일에 중복될 수도 있으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늘양식 신청 :** 감리교회에서 발행하는 가정 예배서 <<하늘양식>>이 꼭 필요한 분들은 뒤에 마련된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주십시오. 이번에는 필요한 분들에게만 드리겠습니다.
8. **특별새벽기도회** : 지난 주간부터 시작된 새벽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한 주간만이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석해보십시오.
9. **신앙실천 :** 일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듯 대하십시오. 그의 불편은 덜어주고, 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헌화 (임창선 - 남편 추모)

*돌떡 (이계선/이소순 집사님이 손자 대훈/도영의 돌을 맞이하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